

“문명 발달할수록 인간은 오그라들고 있으니...”



→ 절 아닌 절에서 전하지 못할 글 쓰는 소설가 김성동

이렇게 깊은 곳에 이렇게 좋은 터가 있구나!
누렇게 익은 벼가 논두렁을 걸어 나올 것 같은 가을 다랑논들을 따라 한참을 들어간 계곡 끝. 신기하게도 그 끝에서 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에서 흥천 지경으로 넘어가는 우뚝고갯길을 확장 포장하는 공사다. 우거진 숲과 웅혼한 산세로 봐서 참으로 아름다운 고갯길이 있을 성 있는데, 파헤쳐진 황톳길이 어색하기 그지 없었다. 인간에게 속살을 집탈당한 고갯마루에 소설가 김성동 선생이 살고 있다.

비사란야(非寺蘭若).
작가(作家)의 집 이름은 '절 아닌 절'이란 뜻이다.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리고 보니 바지는 승복처럼 생겼고 뒤통은 와이셔츠다. 작가의 별호는 전중거사(前中居士), 뜻을 물으니 “전직 중이었으니까” 짧게 답한다.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중심이 되라는 뜻이라 풀던지...” 작가는 더 이상 이름 따위에 얽매

됐을 때야. 즉, 당선. 그 전보를 받고 참 좋았었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 그땐 감찰부야. 지금은 호법부라고 하지만. 소환장을 받고 갔는데, 왜 방황하는 승려를 내세워서 승단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느냐는 거야. 살벌한 분위기가. 야, 너도 생각해 봐.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4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내라는 거야. 참 황당할 일 아니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 소설 쓴 것뿐인데. 안티 없는 발전이 있겠어? 아무튼 황년도 안 먹고 해서 광고 내겠다고 거짓말하고 토론했어. 내가 그럴 돈이 없잖아. 사과 광고 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도망쳐서 호남 일대를 돌아 다녔어. 그러다가 부산엘 갔는데 어느 절에서 한 장의 공문을 보게 됐어. 어느 절에서든 나를 먹여주지도 말고 재워주지도 말라. 어기면 그 절도 동투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내용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작가는 그 때의 살벌하고 기막힌 공문 내용을 줄 줄 읽어 보이며 웃었다. 쓸쓸하게.

좋은글엔 읽으며 자신 돌아보게하는 힘이 있어

깊은 산 오두막서 은거하며 집필...‘고통 즐기기’

고 싶지 않은 논지였다.

전기는 들어오지만, 전화와 컴퓨터가 없었다.

“전화 넣으려면 전신주 박는 데만 몇 백 만 원이 들어. 휴대폰 있으니 이걸 생명줄로 알고 살면 돼. 가끔 원고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전화도 없는데 무슨 팩스야. 컴퓨터? 난 싫어.”

작가는 언론사나 출판사에 급한 원고를 보내기 위해 20리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우편으로 원고를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교정지를 받는다.

“글을 손으로 쓰는 것과 컴퓨터로 찍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야, 너도 생각해봐. 컴퓨터로는 유장하게 출렁출렁 거리는 문장을 구사할 수가 없어. 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어휘를 구사하느냐에 달렸는데 컴퓨터로 찍어내는 언어는 전달부호에 불과해. 손끝에 혼을 실어서 써나갈 때 미려하고 장엄한 글이 이뤄지거든. 컴퓨터 때문에 우리말의 섬세한 맛이 시들어 가고 있어. 조선의 문체는 출렁거리는 유장한 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글을 쓰고 읽는 맛이거든.”

소설 <만다라>로 전국을 들쭉지게 했던 작가는 아직도 승적을 박탈당하던 때의 아픔을 지워내지 못했다.

“어느 종교 신문에 ‘목탁조’란 소설이 당선됐지. 도봉산 천축사에 있을 때였어. 중노릇하던 9년쯤

“그 후 서울에서 ‘목탁 노동자부전살이’를 하다가 기성복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 살 돈을 마련해 웃을 갈아입었어.”

그리고 작가는 바둑잡지에 취직을 했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입산의 원력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그 젊은 나날 속에서 작가는 세상의 모순과 역사의 왜곡을 뼈저리게 아파했다. 그 고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깊은 산골에 혼자 살면서 외출도 극도로 억제하는 작가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수행이다.

“세상이란 게 말이야. 절대로 만만치 않아. 야, 너도 생각해 봐. 어디 맘 놓고 자유롭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인지. 저기 아래 참 좋은 고갯길이 있거든. 오다가 봤지? 이 깊은 곳까지 저렇게 파헤치고 포장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게 말이야. 한동안 문밖에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 보니 땅이 우는 소리가. 깜짝 놀랐지. 그게 그 울음소리를 따라 내려가 봤더니 커다란 불도저가 땅을 파헤치고 아릅드리 소나무를 뽑아내고 있더라고. 야, 너도 생각해 봐. 산천이 무너지니까 인심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파헤쳐 지는 우뚝고개에서 작가는 ‘분이 누나’를 만났다. 영마루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누나’는 귀(鬼)였다. ‘분이 누나’는 의병이던 정인(情人) 판들과 우뚝고개에서 헤어졌다. 그 사무치게 보고 싶은 판들이를 기다리느라 영마루를 떠나지

못한 ‘분이 누나’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술도 나눠 마신 작가는 그 아리고 시린 이야기를 <창작과 비평> 2007년 겨울호에 ‘무섭고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편으로 발표했다. 이 소설은 올 여름 <문학의 문학>에 발표한 ‘리로 리런나’와 함께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우수작에 선정됐다. ‘리로 리런나’는 한국전쟁 때 이념의 회로 속에서도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는 소년의 이야기다. ‘무섭고 슬픈 이야기’가 현재의 삶에서 깊어 올린 이야기라면 ‘리로 리런나’는 깊은 회한 속에서 건져 올린 그리움이다. 작가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고 한국전쟁과 이념분쟁의 외중에 목숨을 잃었다. 언제 어디서 이승의 웃을 벗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신날 제사를 모신다.

“진짜 좋은 글이 뭐겠어?”
작가는 갑자기 본인의 업(業)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망연해진 기자를 다그치는 작가의 눈에 핏기가 어려 있었다.

“진짜 좋은 글은 말이지.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글이 진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야, 너도 생각해 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날카로움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존재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즐겁고 재미있고 읽고 나면 그것뿐인 그런 글이 좋을 글일 수 있겠어?”

작가는 요즘 한 잡지(위클리 경향)에 ‘김성동의 현대사 아리랑’을 연재하고 있다. 작가가 불치병처럼 화두처럼 품고 있는 역사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작업이다. 근현대사에 명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찢어지고 곡해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열원이 불꽃같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가끔 아니 자주 글을 써 놓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고 되물어. 글을 쓰는 동안은 이런 불안과 회의를 벗어나지 못할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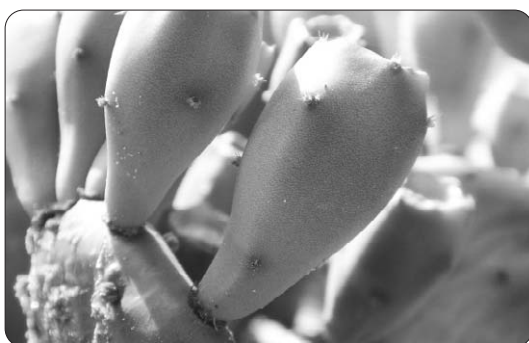
작가가 작가인 동안 앓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고통. 어쩔 수 없다면 그것마저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은 붓끝 쓰기에 힘을 들인다는 작가의 머리위에 ‘시인부전(詩人不傳)’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문학으로는 전할 것이 없어. 문학으로 뭘 어떻게 전하겠어? 야, 너도 생각해 봐. 삶 전체가 그대로 터져 나와야지. 온 몸으로 부딪히고 깨치고 이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할 길이 없잖아. 봐. 쌀가마니(쇠가마니)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 해주셨잖아. 우리가 그 밥을 못해 먹는 것뿐이지. 야, 너도 생각해 봐.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그만큼 오그라들고 있잖아. 이렇게 오그라들어서야 뭐가 될지 알 수 없어.”

장산꽃의 매처럼,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처럼, 곤륜산을 넘는 봉채처럼 활개를 펴고 우주를 비상하는 꿈. 그런 꿈마저 오그라들어버린 이 세상의 풍경을 작가는 높은 산 오두막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님



석가모니부처님



관음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편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